

# 북한 '경제의 정치화'

조영기

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

# 목 차

- '경제의 정치화'의 의의

- '경제의 정치화'의 실패 요인

- 북한 '경제의 정치화'의 과정 및 현상

# '경제의 정치화'의 의미

## '경제의 정치화'와 경제체제

### '경제의 정치화'의 의미

- "정치는 정치의 길이 있고, 경제는 경제의 길이 있다."
- 정치(권력)가 경제에 개입·간섭하는 현상 자주 발생
- 정치가 경제관계를 지배하고 경제질서를 바꾼다.

정치는 경제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. 이와 다르게 주장한다면 맑스주의의 ABC도 잊어버린 것이다.

## 국가의 독점

- 국가: '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행사가 정당한 인간공동체'
- 국가독점의 형태
  - 물리적 폭력의 독점: 경찰력, 군대, 세금징수, 형무소
  - 경제적 독점: 생산수단의 국유화, 계획경제
- 국유화와 계획경제와의 관계
  - 생산수단의 국유화: 국가가 경제적 자원을 독점
  - 국유화는 계획경제 가능 → 국가의 경제적 독점 강화
- 국가에 의한 경제적 독점의 폐해
  - 독점이 자율적으로 해소되는 길을 차단

## '경제의 정치화'와 생산함수

$$Q = f(L, K, I)$$

(Q: 생산물, L: 노동, K: 자본, I: 이념)

- 이념(ideology): 체제 또는 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
- 체제 or 제도를 결정, 집단화와 중앙 집중화의 정도를 결정
- 이념 → 체제 또는 제도 결정 → 국가권력의 개입 정도 결정  
→ 집단화와 중앙 집중화의 정도를 결정
- 이념이 국가권력의 개입 정도 결정, 이념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
- '경제의 정치화' 정도: 이념에 의해 경제체제가 결정
- '경제의 정치화': 생산수단의 집단화와 중앙 집중화 정도에 따라 결정
- 따라서 '경제의 정치화'는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계
- 경제체제가 생산수단의 집단화와 생산 및 분배의 중앙 집중화를 결정

## 경제체제의 우열(優劣)

- 경제체제: '경제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규칙적, 지속적 체계'
- 경제체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집단화와 중앙 집중화의 정도
- 자본주의시장경제
  - 대부분의 생산수단은 개인이 소유
  -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짐
- 사회주의계획경제
  - 중요한 생산수단은 국가 또는 협동단체가 소유
  - 집단화를 기반으로 중앙 집중적 계획에 의해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짐
- 경제체제의 우열은 역사적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로 판단
  - 러시아 혁명 이후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체제경쟁
  -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짐
  - 이는 사회주의계획경제의 '경제의 정치화' 현상이 만든 귀결
  - '경제의 정치화' 현상은 사회주의체제에 내재된 특징

# '경제의 정치화'와 집단화

## 소련의 집단화

- 생산수단 집단화 유형

- 국유화 및 협동화

- 레닌: "토지는 인민의 것이다."

- 국가소유 = 전인민적 소유, → 모두의 소유는 독재자의 소유

- 국유화의 대상

- ① 은행업무의 집중화와 국유화

- ② 신디케이트, 주요 자본주의적 결사체(설탕, 석유, 철, 석탄 등) 국유화

- ③ 상업비밀의 폐지

- ④ 독립적인 기업들은 신디케이트로 합병되어야 한다

- ⑤ 강제적 소비자협동조합 가입

- \*식량이 자유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'추잡한 투기행위'로 규정

## 중국의 집단화

### • 인민공사

#### -인민공사의 기능

- 대규모 집단농장, 행정과 경제·사회·군사 조직이 일체화된 조직
- 중국 농촌의 사회생활 및 행정조직의 기초단위
- 수리·관개 작업의 편의를 위해 평균 5천 가구로 구성된 거대집단농장
- 사회의 '공산주의적 조직'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형태

#### -인민공사의 목표

- 생산 및 소유의 집단화를 통한 사회주의 이상 실현의 물질 기반
- 농촌에서 공업 발전
- 계획적 대규모 작업을 통한 각 지방을 자급자족체계 지역으로 육성  
(탁아소, 공동식당, 공동침소, 양로원 구비)

했고, 인민공사는 까지 갖추며 거의 자급자족 체제가 되었다

#### -인민공사 시행 결과

- 모든 인민은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
- 농민은 아주 작은 땅도 사적 용도로 사용불가
- 경제계획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최악의 상황
- 농업생산량의 격감 → 농촌은 극심한 기근과 아사자(3,000만명) 속출

## • 대약진운동

- 높은 목표를 향해 진전하여, 많은 생산량을 산출하고, 빨리 질 좋게 원가를 절감하여 건설하는 사회주의 총노선

- 초영월미(超英趕美): '10년 내에 영국을 초월하고 15년에 미국을 따라잡는다!'

㉠ 토법고로(土法高爐): 철생산을 위해 100만개의 고로, 고철만 생산

㉡ 제사해운동(除四害運動): 해로운 4가지 박멸(참새, 들쥐, 파리, 모기)

· 2억 마리 참새 포획 → 해충 극성 → 농업생산량 감소

㉢ 수확적 농법: 벼를 밀식재배 → 벼의 성장 방해

- 대약진운동의 결과

· 강철 대신 고철 양산

· 부풀린 농업생산실적은 과중한 세금

· 지나친 '균등'도 생산의욕을 감퇴

· 마오쩌둥의 실각

## • 문화대혁명

- 전근대적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대중투쟁

- 마오는 문화혁명을 통해 다시 권력을 장악해 급진적 사회주의 이상 실현하기 위한 계급투쟁

- 생산력의 발전과 동시에 생산관계를 공유제 위주의 사회주의체도로 전환

· 생산력 발전을 중시하는 유생산력론(唯生產力論) vs 계급투쟁과 생산관계의 전환을 중시하는 생산관계중심론(生產關係重心論)

· 생산관계중심론: 계급투쟁의 극단화, 혁명과 건설의 결합, '정치에 의한 일체의 지배

# '경제의 정치화'와 계획경제

- 계획경제

- 일국 경제의 계획적 운영은 무정부적 시장경제보다 좋은 성과
  - 독일 사회민주당 내각의 경제장관 비셀(Rudolf Wissel)이 최초로 사용
  - 마르크스: '의식적 계획적 규제·통제에 의해서 조직되는 경제가 이상사회
  - 이상사회: 일국 경제가 '하나의 공장'처럼, 하나의 공장에서 분업하는 조직
  - 레닌의 공산주의의 1단계: ..'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임금 하에 사회전체가 '하나의 사무소와 하나의 공장'의 상태 → 사회적 분업을 공장내 분업으로 전환
- 사회주의자들의 사적소유에 대한 인식
  - 계획경제의 실현을 저지하는 핵심요소로 생각
  - 혁명을 통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면 계획경제 실현가능
  - 계획경제의 사회적 틀 구축, 자본주의 경제의 무정부성 시정, 생산력은 증강
  - 생산력이 생산관계의 속박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은 진보, 경제운영 효율화
  - 거대기업의 사회화로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

# '경제의 정치화'와 정치적 지대

## 경제제도의 포용성

- 경제제도의 포용성에 따른 분류

- 포용적 경제제도

- 인간 모두를 위한 제도
- 생산수단의 집단화와 계획의 중앙집중화의 정도가 낮고 시장과 가격에 의존
-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고 '경제의 정치화' 정도가 낮음
-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의 유인 제공

- 착취적 경제제도

- 집단화와 중앙 집중화의 정도가 높음
- 권력집단의 간섭과 개입 가능성이 높아 '경제의 정치화'의 정도가 높음
- '경제의 정치화' 로 정체와 빈곤을 초래
- 국민의 재능 발휘 기회 상실로 국가실패의 근원

## 정치적 지대

- '경제의 정치화' 현상 심화 '독재자의 경제 논리'가 적용될 가능성 농후

- '독재자의 경제논리': 독재자(집단)의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

- 정치적 지대

· 국민 다수의 경제적 잉여가 독재자(집단)의 경제적 잉여로 이전

· 정치적 지대는 '경제의 정치화' 현상의 결과물

- 정치적 지대의 문제

· 거의 공짜로 얻는 이전소득으로 비생산적 경제행위

· 독재자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도구로 악용

· 자원 또는 부의 배분이 비합리적 요인(유착과 결탁)에 의한 관계 형성

· 경제적 비합리성에 기반한 잉여창출: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구조 정착

# '경제의 정치화'의 실패요인

## 사회주의계획경제의 4대결함

- ① 사적 소유의 번영기능과 시장의 합리적 계산 기능을 억제·차단한다.
- ② 연성예산제약(soft budgets constraints)을 허용해 비효율적인 생산방식을 개혁할 기회가 매우 낮다.
- ③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국가 소유로 대체하는 것은 선택 유인을 왜곡한다.
- ④ 사회주의 체제는 노동과 자본의 분업 체제의 경제적 조정을 방해한다.

# 북한의 '경제의 정치화' 과정 및 현상

## '경제의 정치화' 과정

### 정강20개조 발표

- 사회주의정부 수립을 위한 초기의 강령 발표('46.3)
- 반제반봉건투쟁을 위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 과업을 포함
-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집중의 계획경제의 틀 마련

### 토지개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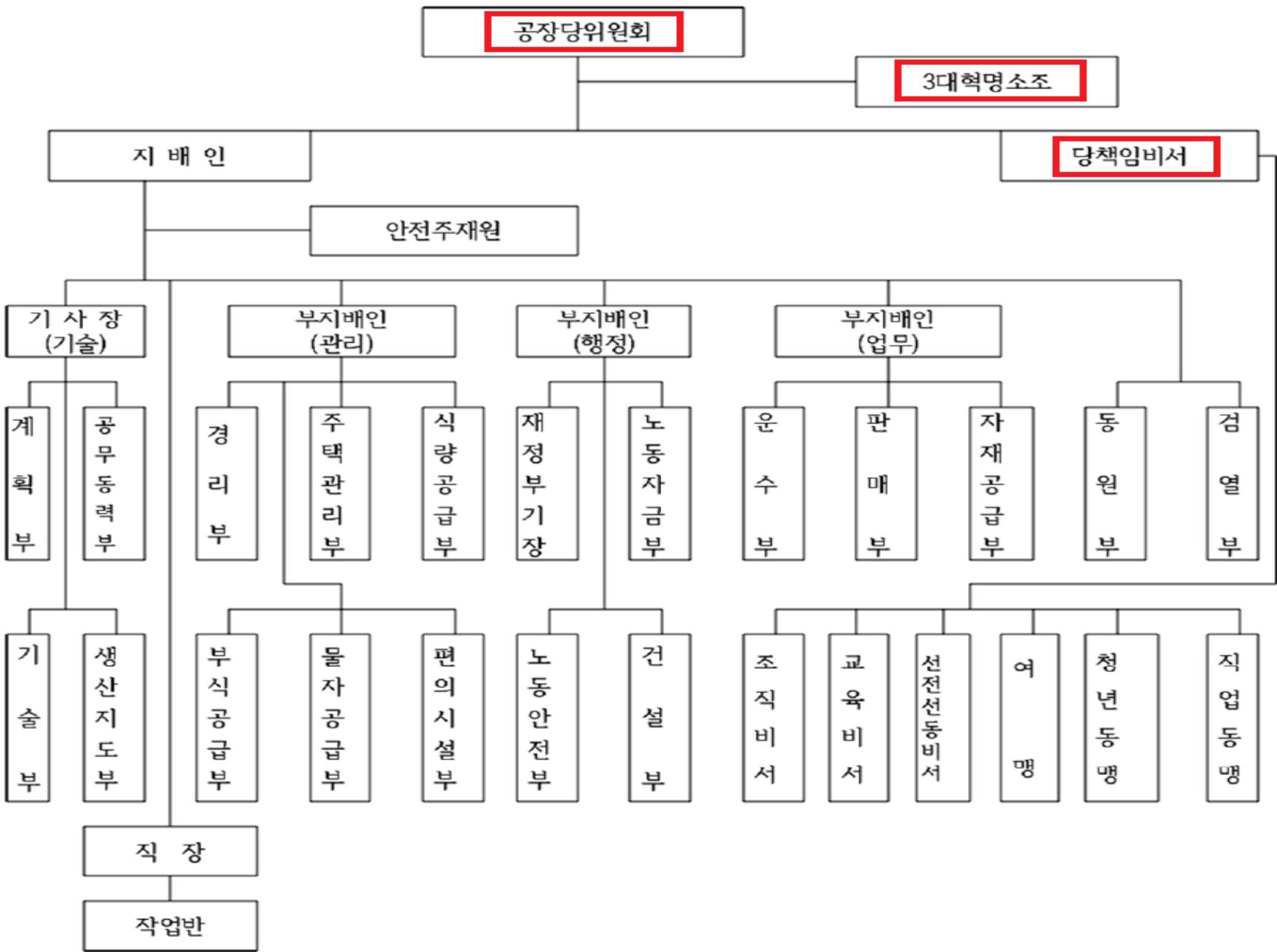
- 정강20개조에 의해 '토지개혁법령'을 공포하고 토지개혁
- 토지문제 해결로 봉건적 생산관계와 지주계급의 청산
-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유리한 사회경제적 조건 조성
- 농업집단화를 위한 전제로 토지개혁
- 6.25 전쟁 직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해 농업협동화에 착수 1958년 협동화 완수
- 농업의 개인농민의 경리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
- 인간해방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
- 청산리 방법을 도입해 당과 국가의 협동농장 개입을 정당화=> '경제의 정치화'
- 1964년 '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테제'를 발표,
- 협동농장을 전인민적 소유(국가소유)로의 전환을 공식화

## 주요산업 및 개인상공업의 집단화

- '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'('46.8)
  - 공장, 기업소, 광산, 운수, 체신, 은행 등을 모두 무상몰수의 형식으로 국유화
  - 지하자원과 산림, 수역 등 자연자원을 국유화('46.12)
- 북한이 주요산업의 국유화의 특징
  - 무상몰수의 형식으로 단기간에 실시
  - 이들 산업들이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일본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가능
-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
  - 주요산업의 국유화와 농업협동화의 진전과 병행해서 추진
  - 수공업 부문: 생산협동조합이 조직('47~'57)
  - 상업부문의 협동화: '56~'58

## 대안의 사업체계

-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아래 경영활동을 벌려나가는 방식
- 산업의 정치화를 위해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('61.12)
-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업부문에서 '경제의 정치화' 실현



## '경제의 정치화' 현상

### 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호도(糊塗)

-생산수단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의 분리

·형식적 소유자: 인민

·실질적 소유자: 독재자(집단)

-소유자 분리로 인한 결과: 정치적 지대 수혜자와 비수혜자 구분 => 인민의 궁핍화 초래

### ② 생산 분배의 중앙집중적 계획

-하나의 사무소, 하나의 공장이 모토

·'하나의 사무소'의 역할: 국가계획위원회가 담당

·'하나의 사무소'는 필연적으로 생산 분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

·'하나의 공장'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

-계획경제의 특징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물품을 강요하는 공급자 중심 경제

-계획경제의 문제

·계획화를 위한 정보의 부족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계획의 비효율성 초래

·공장·기업소의 창의성과 자율성 결여

·만성적 연성예산(soft budget) 제약

·물량중심의 계획화로 인한 품질경시

·경제운용의 관료주의적 성향

③ 생산현장에서 '경제의 정치화' 현상이 제도화, 일상화

-경제운용원칙: '정치우선의 원칙', '집체적 지도', '유일적 지배'

-생산현장에 접목 사례

·대안의 사업체계: 공장 당 책임비서가 공장 · 기업소를 지도관리

·청산리방법: 리(里)인민위원회가 협동농장을 관리

④ 보여주기식 정치행사와 정치적 지대의 상존

-노동력 동원 위주의 외연적 성장

·천리마운동, 만리마운동, 마식령속도 등

-정치적 지대의 문제점

·정치적 지대 수혜집단은 개혁을 저해하는 개혁 저해세력

·협동농장의 20~30% 정도의 정치적 지대 수혜집단이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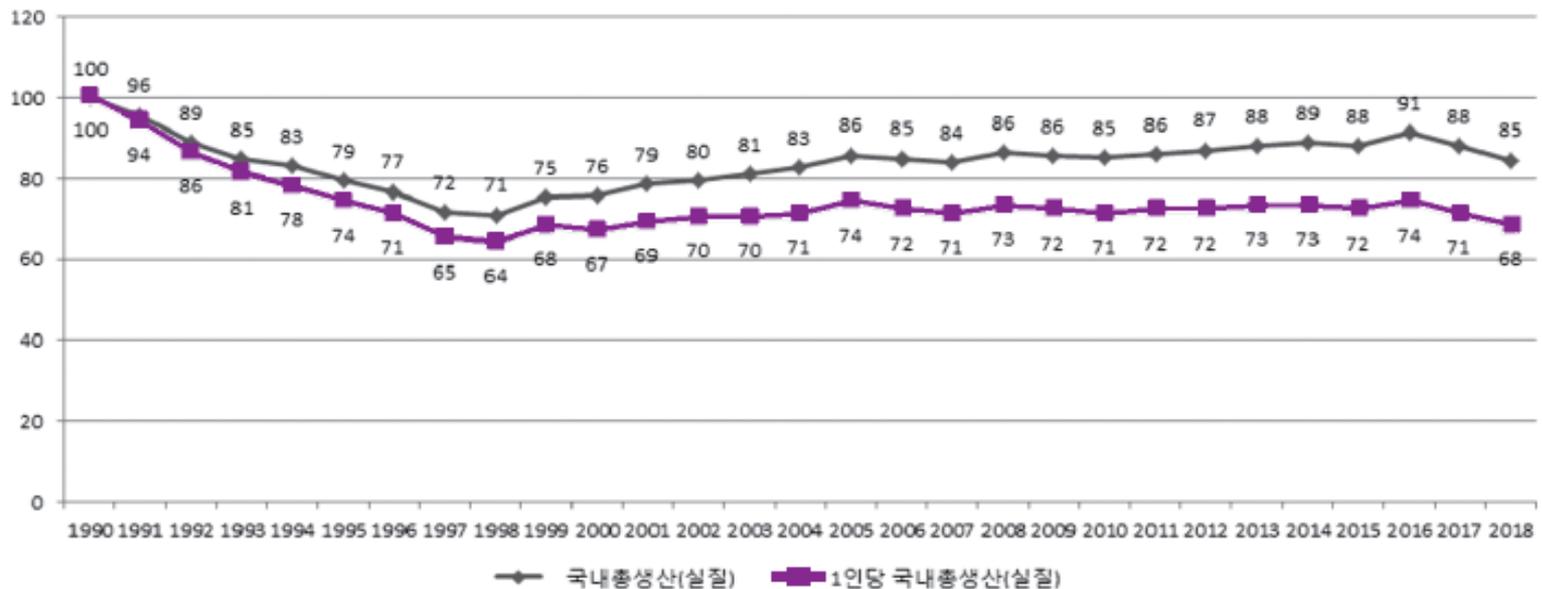
(이들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생산독려, 감시, 학습 등의 명목)

# '경제의 정치화' 결과

## 퇴축형 경제의 지속

### 북한 경제규모의 장기추세(1990년 이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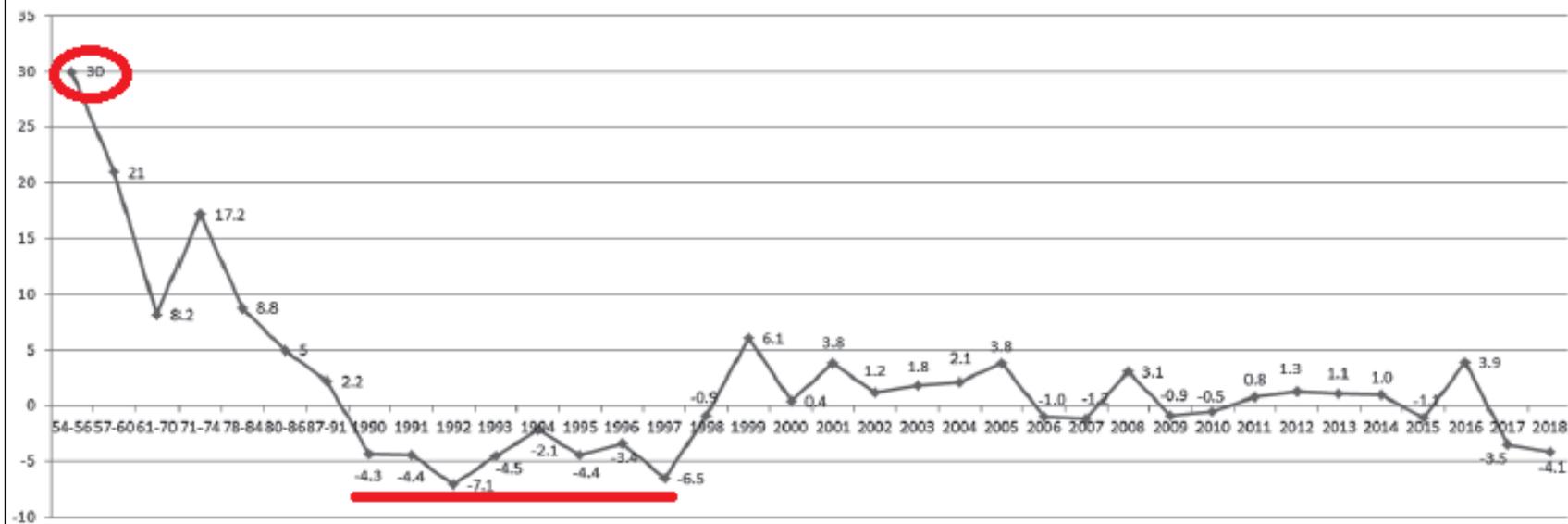
(단위: 1990=100)



# 경제성장률의 장기저하

## 북한경제성장률의 장기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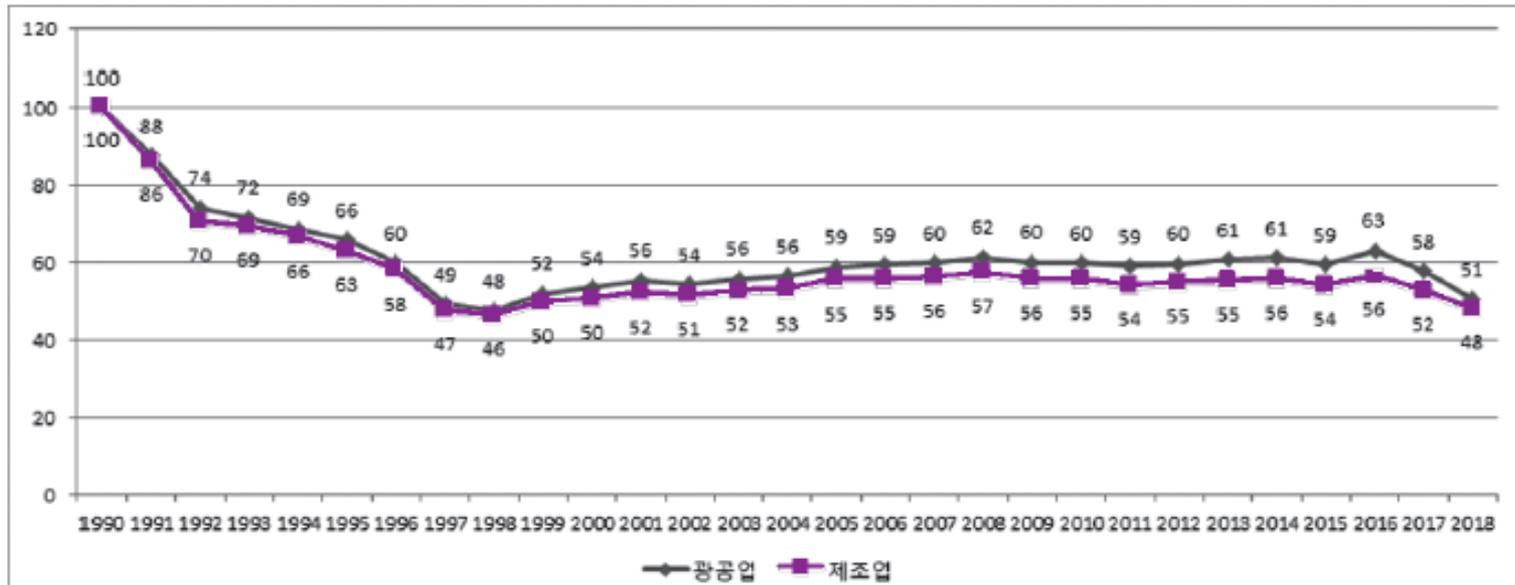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# 산업생산의 장기침체

## 광공업 ·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

(단위: 1990=100, %)



## 사회주의 실험 70여 년의 현주소

- 70여년의 실상
  - 해방 직후 더 양호한 경제적 자산을 일제로부터 물려받음
  - 그러나 '경제의 정치화'가 남긴 유산
    - 3난: 외화난, 에너지난, 식량난
    - 3저: 낮은 노동의욕, 낮은 국제경쟁력, 낮은 기술수준
    - 3악: 열악한 생활수준, 조악한 제품의 질, 시설노후화(\*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시 금수산기념궁전에 9억8천만 달러 탕진)

- 70여년의 허상

**“사회주의 이념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었고,  
실현되었을 때 가장 파괴적이었다.”**

(-로버트서비스의 '코뮤니스트' 중에서-)



2014년 NASA 촬영

정치가 만든 구조·제도·현황·정상화

# 정치가 지배하는 북한경제

조영기 지음



**감사합니다.**